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2. 5.(목) 11:00,
(지면) 2024. 12. 6.(금) 조간

배포 2024. 12. 5.(목) 06:00

새만금신항 항만운영 필수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착공

- 총 984억 원 투입, 새만금 신항 연결도로 공사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5일(목) 새만금신항의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첫 도로인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의 개설 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지역의 배후산업 성장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하여 새만금신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두, 진입항로 준설 등 기반인프라를 조성 중이다.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새만금신항은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항만과 육지를 연결하는 진·출입로 개설이 필수적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984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신항만과 육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720m, 내부진입도로 1,636m를 건설할 예정이다.

새만금신항 진입도로가 건설되면 배후산단 등과 연계한 원활한 화물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새만금신항이 서해중부권 지역의 중추적 항만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새만금 지역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만금신항의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진입도로가 적기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새만금신항이 새만금의 대표적인 SOC 선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개발과	책임자	과 장	황상호 (044-200-5930)
		담당자	사무관	김용수 (044-200-5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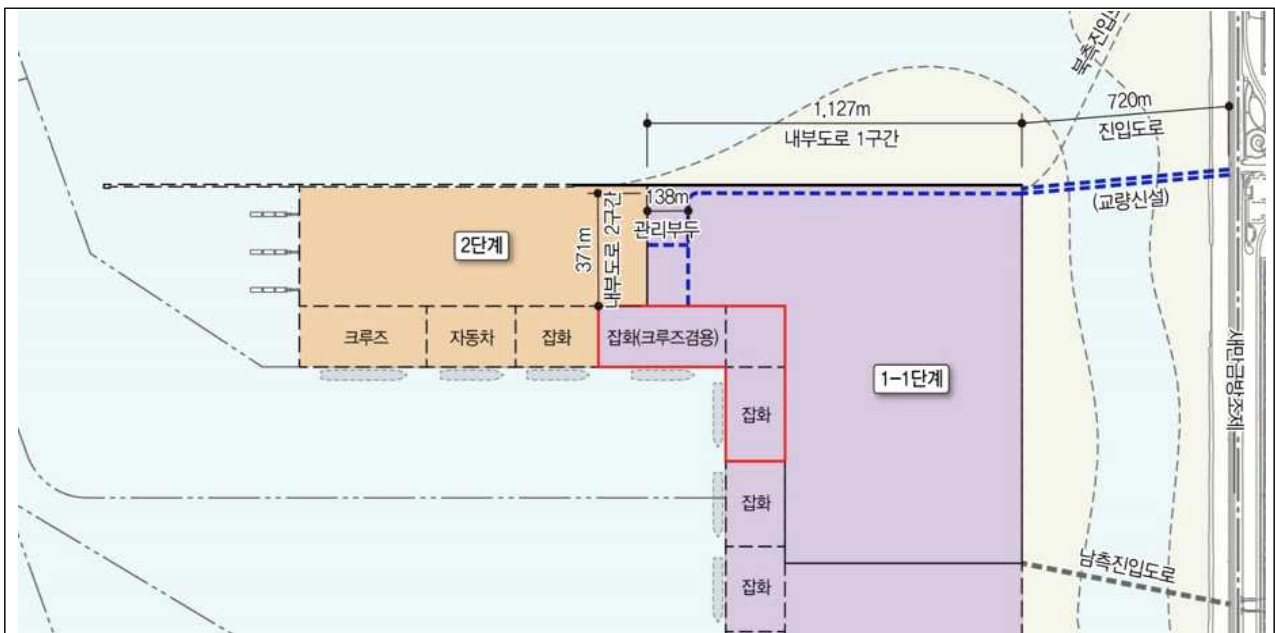
□ 사업 개요

- (목적) 새만금 신항 및 배후산단과 연계한 물동량 처리 등을 위해 신항만과 육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및 내부진입도로 건설
- (위치) 전라북도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해상
- (규모) 진입도로 개설 720m, 내부진입도로 1,636m 등
- (기간/총사업비) '21년~'27년(공사기간 '24.12. ~ '27.3.)/ 984억원

□ 추진 경위

- '97.05. : 신항만예정지역 지정 및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 '09.10. : 예타 시행(간이, B/C 0.67)
- '19.08.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고시(재정 2선석, 5만톤)
- '21.06. ~ '22.06. : 기초조사용역 시행
- '23.03. : 설계·시공 일괄입찰(T/K) 공사발주
- '23.11. : 기본설계 심의 / '24.5. : 실시설계 심의
- ~'24.12. : 공사비 적정성 검토, 가격협상 등 수의시담(조달청)
- '24.12.05. : 본공사 착공

□ 계획평면도



□ 조감도

